

[정보·과학]

정보 TIP

야간에도 등기우편물 수령 가능

집에 사람이 없어 등기우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크게 줄었다. 야간시간에 등기우편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연장되고, 아파트 관리소나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등기우편물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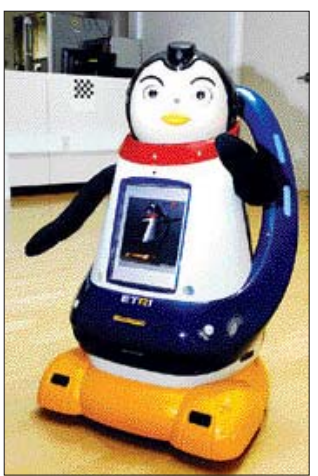
15일 전남제1청(청장 김지동)과 광주우체국(국장 김한준)에 따르면 등기우편물 수령처와 수령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등기우편물 배달물량상방안'을 마련,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우체국은 맞벌이 부부 등으로 낮시간에 등기우편물을 받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 배달 우체국에서 직접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수령 장소도 배달 우체국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창구 우체국, 우편취급국까지 확대했다. 문의 광주우체국 (062)231-0210, 0240.

ETRI, 감성 표현하는 로봇 포미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최문기)은 최근 인간의 감각 중 미각을 제외한 시각, 후각, 촉각, 청각의 감정 표현이 가능한 감성 표현 로봇 '포미(POMI)'를 개발했다.



'포미'는 펭귄 모양의 로봇으로 시각적 감성표현 장치로 눈썹, 눈꼬름, 눈동자, 입술 등의 얼굴 구성 요소를 각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LED 표현 장치와 함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얼굴 표정 표현이 가능하다.

후각 감성표현 장치로 두 가지 다른 향을 발산할 수 있는 분사기가 내장돼 기쁠 때는 상쾌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내비친다.

파란정보기술 '한자 이순신' CD 출시

(주)파란정보기술(대표 이영락 www.paranit.co.kr)은 최근 새로운 한자 학습 길잡이 '한자 이순신' CD시리즈를 개발, 출시했다.

'한자 이순신'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해전 전략, 거북선의 활약상 등 역사 이야기 속에 한자의 부수와 생성 원리를 설명, 한자를 알기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1~8급까지 총 9단계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게임 형태로 제작돼 초등생들도 재미있게 한자를 배울 수 있다. 또 한자급수검정을 대비해 기출문제 등 다양한 문제풀이도 제공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은 촛불 시위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지난 10일,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광주시 금남로에는 3만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100만의 인파가 참여했다. 이들의 손에는 두 개의 필수품이 들려 있었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최첨단 휴대전화기. 21년 전 6월항쟁의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이제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이 대신하고 있다.

촛불 집회는 최첨단 IT경연장

화염병·쇠파이프 대신 디카·3G휴대전화·무선 인터넷

사진·동영상 찍어 인터넷 사이트 생중계... 여론 이끌어

▲한 손엔 촛불, 다른 손엔 첨단IT=지난 달 2일 서울서 처음 시작한 촛불 시위가 45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예전과는 달리 오프라인 단체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영상 촬영이 가능한 3G 휴대전화·무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여론을 이끌고 있다. 모니터 등 세계 언론은 촛불시위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과 최신 통신기기의 활약상을 앓다뒀 보도하고 있는 등 촛불시위 현장이 최신 IT기기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회 장소와 전투경찰 배치위치 정보, 일기 예보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고 성능 좋은 카메라폰으로 집회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무선 인터넷을 이용, 즉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경찰의 시위차 연행에 대한 항의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이 같은 1인 미디어에 적합한 IT기기를 서로 추천하기도 한다.

현장 생중계를 담당하는 캠코더로는 산요의 '작티(작고 인체공학적이어서 오래 사용해도 손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뜻)' 시리즈나 삼성전자의 VM-X300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 손에 쥐기 편리하고 3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카메라의 선택 기준으로 충격과 방수 기능이 꼽힌다. 올림푸스의 '뮤 700' 시리즈가 대표적인 방수 카메라로 인기가 있다. 이밖에 어두운 곳에서도 간단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LG전자의 '뷰티'나 삼성전자의 500만 화소폰 'SCH-W480' 등도 시위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품이다.

현장에서 무선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노트북도 휴대하기 편하고 배터리 성능이 오래가는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센스Q45', LG전자의 '엑스노트 E200' 등이 꼽힌다.

▲온라인 스타 '촛불'= 촛불 시위는 온라인에서도 뜨겁다. 그 중심엔 '촛불 이모티콘'이 있다. 지난달 26일 처음 등장한 '촛불 이모티콘'은 3주만에 10만개가 분양되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모티콘은 현장에서 나가 촛불을 들어야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해의 거주자나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 촛불을 달기 위해 휴먼블로그를 개운 사용자들도 2만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촛불은 개발한 캐릭터로 재탄생하기도 했다. '촛불소녀'를 본따 만든 '촛불 대가족', '촛불 초딩', '촛불 유모차', '촛불 예비군' 등도 등장했다.

인터넷방송국 '아프리카'도 스타로 떠올랐다. 아프리카는 사용자가 만든 동영상 인터넷으로 방송해주는 사이트로 지난 10일 하루동안 아프리카에 개설된 생중계 방송만 무려 1천357개에 달했다. 평소보다 트래픽이 서너배 올랐다.

▲촛불 불똥 네이버로= 촛불의 '불똥'이 된 곳도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상당수 네티즌들이 진행 중인 보수 언론 반대 운동의 한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네이버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서 촉발된 '촛불 정국'에서 촛불집회 생중계 사이트 검색을 차단하고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은 '반(反)네이버' 운동으로 이어져 업계 1위라는 위상을 흔들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시작페이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네이버의 배너 광고를 차단시켜 주는 파일을 온라인상으로 공유하는 등 네이버의 수익원에 타격을 입히는 활동까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여파로 네이버는 업계 2위 업체인 다음에 급속도로 추격당하고 있다. 일례로 뉴스 섹션의 경우 쇠고기 협상 타결 직전인 지난 4월 둘째 주 네이버의 페이지뷰는 6억9천65만건으로 6억1천952만건의 다음을 7천만건 이상 앞섰으나 5월 마지막주 네이버 뉴스 페이지뷰는 8억8천550만건으로 다음 뉴스(9억5천553만건)에 추월 당한데 이어, 이달 첫째 주에도 9억1천129만건으로 다음 뉴스(11억8천654만건)에 2억7천만건 이상 뒤처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촛불 시위 현장은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또 다른 최신 'IT기기 경연장'이 되고 있다.

우표·예술작품 동시에 감상하세요 20일부터 남도 우표문화제

'2008 남도우표문화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옛 전남도의회)에서 열린다.

전남제1청이 주최하고 광주우체국이 주관하는 남도우표문화제는 광주·전남 최대 우표전시회로 수준 높은 우표문화 체험을 통해 우표 취미 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 우표문

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문화제에는 테마별 우수작품 60여점, 우표원도 20여점 등 총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나만의 우표 현장 접수, 우표취미가 초청 우표 강좌, 우표디자이너 사인회, 우표조각 맞추기 등 다양한 우표문화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우취판매 코너를 개설해 우표 취미자들에게

희귀 우표 수집 기회도 제공한다.

김한준 광주우체국장은 "이번 남도우표문화제에는 테마별 우수작품과 20여개의 우표원도 등이 전시돼 우표와 예술작품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꿈나무 컴퓨터 경진대회 28일 전남대·조선대 등서

광주지역 정보화 리더 육성을 위한 '꿈나무 컴퓨터 경진대회'가 오는 28일 전남대·조선대·광주여대 등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광주지역 3학년 이상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한 문자·이미지를 활용한 문서작성 등을 겨루게 되며 학교생활에서 주로 활용되는 내용과 시사성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 참가 신청은 학년에 따라 제1부(3~4

학년)과 제2부(5~6학년)으로 나눠 오는 20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우수자 13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대상 1명)과 광주시장상(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이 수여된다. 결과는 7월7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itct.or.kr)를 통해 발표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ro-namin products. It features a man stretching and a woman smiling. Text includes: "온몸이 나른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비타민 부족이 춘곤증을 부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증처럼 물리지 않는 봄... 봄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봄, 몸도 마음도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B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보강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찬 건강과 깨끗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Products shown: 아로나민 씨플러스 (Aro-namin C Plus) and 아로나민 골드 (Aro-namin Gold). Contact: 080-022-1010 (수선자투금), www.aronamin.com